

보도 일시	2022. 1. 26.(수) 16:00	배포 일시	2022. 1. 26.(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203-2555)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44-203-2548)

'22년 전통문화 산업 지생적 성장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

- 1. 26.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5년간 480억 원 투입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전통문화 정책 수요자와 현장 소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신한류로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전통문화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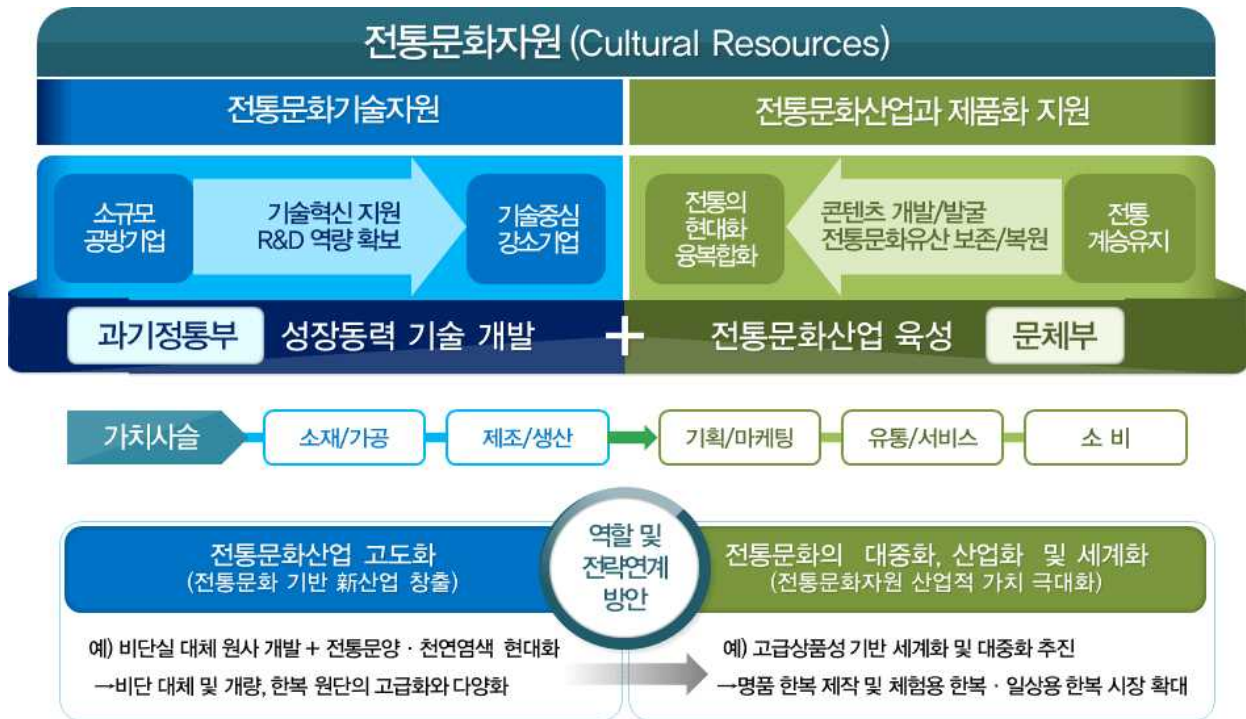
먼저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5년 동안 예산 48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과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26일(수),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에서 공동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의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지난해 실무협의회 9회,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회의 31회를 거쳐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 기획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21년 5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전통 소재와 기반기술 분야의 핵심 원리를 규명하는 '전통문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문체부는 이를 활용해 전통문화 장인, 기업들이 사업화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화기술'을 개발한다. 나아가 양 부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및 상용화·디자인 지원'도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산업화기술-상품화를 잇는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 고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 첫째인 2022년에는 ‘중점 육성 분야’인 한복, 한지 분야 연구를 시작하고, 2023부터는 ‘기본기술 분야’인 목재, 옷칠, 도자, 금속 분야까지 점차 연구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추진내용 >



'22년 전통문화 산업 진흥 위한 예산 259억 원 투입, 6개 신규사업 추가



전통문화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작년보다 62억 원 증액한 예산 259억 원을 투입, 6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상품화, 유통, 수출 등을 잇는 전통문화 산업의 생태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전통문화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 전통문화 기업 기반시설 개선 사업, 전통문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둔다. 전통문화 산업의 신진 인력 유입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통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대상 전통문화 관련 교육, 홍보 등도 민간과 협력해 확대해 나간다.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표(1. 24.)한 <2021년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83.4%)이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만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우리 전통문화를 적극 소개할 방침이다.

전통문화 정책 수요자, 연구개발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청취

’22년 전통문화 진흥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소통도 이어간다.

김현환 차관은 1월 26일(수),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통문화 분야 기업, 창업기획자, 연구소 등 주요 정책 수요자를 만나 전통문화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문화 분야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신규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당일 오후에 열린 과기정통부와의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전통문화 연구개발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김현환 차관은 “최근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전통문화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전통문화 산업이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정책 중심에서 더 나아가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의 전통문화 정책은 우리 세대가 전통문화를 즐기는 ‘오늘의 문화’로 끊임없이 재생산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 창·제작자,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등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2022년 전통문화 지원 정책



2022년 전통문화 지원 정책

2022년 전통문화 지원 정책이 달라집니다.

[주요 특징]

- ◆ 전통문화 지원규모, 전년 대비 확대
'21년 197억원 ⇒ '22년 259억원(31% 증)
- ◆ 신규사업 6개, 전통문화 생태계 조성에 초점
기존 분야별 지원체계 중심 ⇒ 산업 전반의 지원체계 마련

전통문화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추진 방향]



※ 한복(105억원), 공예(137억원), 한지(20억원) 등 분야별 지원규모도 각각 확대

1. 전통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신규**연구개발(문체부 12억원, 과기정통부 10억원), △전문인력 양성(5억원), △전통문양 산업 활용기반 구축(7.5억원), △실태조사(3억원) 등

□ [핵심사업①]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신규**(문체부-과기정통부 협업)

- (사업규모) '22.7월~'27.6월(5년)/총 480억원(부처별 240억원)
 - ※ '22년 예산 22억원(문체부 12억원, 과기부 10억원)
- (연구분야) '22년 한복, 한지 시작으로 목재, 옷칠, 도자 등 확대
 - ① (중점육성분야) 상품별 구분에서, 전통문화상품 전체의 수요를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선도그룹 지정, 집중 지원: 한복, 한지

중점분야	주요연구과제(안)	활용방안
한복	○(고급화) 전통 비단제직기술 현대화 ○(대중화) 비단섬유 대체기술	○(고급화) 전통한복 고부가가치화 ○(대중화) 한복 기반 일상복·근무복·교복
한지	○(고급화) 친환경 백닥 제조기술 ○(대중화) 닥섬유 표면처리기술	○(고급화) 문화재 보수용 고품질 한지 ○(대중화) 인쇄용 한지, 닥섬유 기반 부직포

- ② (기반기술분야) 기술별 구분에서, 전통문화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 활용 가능한 소재와 공정기술: 목재, 옷칠, 도자, 금속



2.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합니다.

△ 청년창업 육성지원(35.5억원), △^{신규}혁신이용권(12.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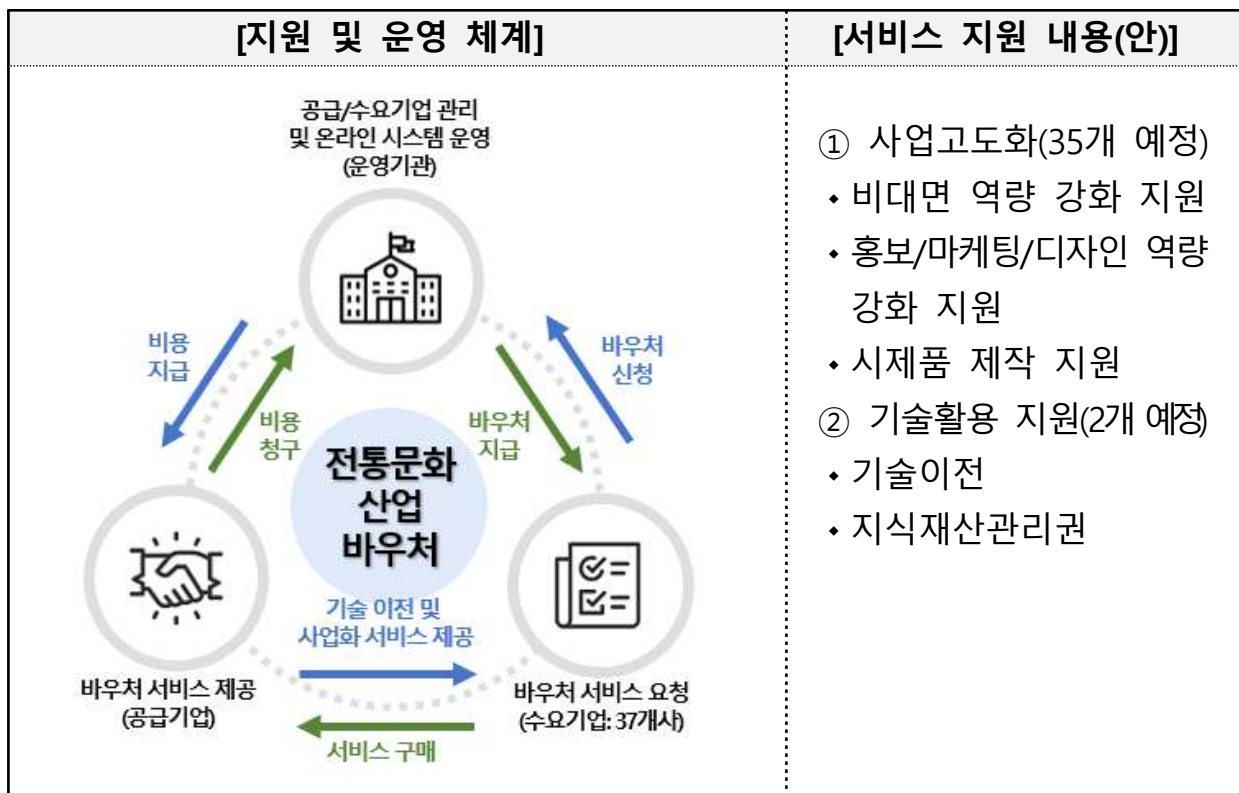
□ [핵심사업②]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 예비창업자(창업 전)와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미만) 대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전통문화산업의 신진 인력 유입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예비 (창업 전)	-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 창업자금 지원(최대 1천만원) 및 교육
초기 (~창업 3년)	-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최대 1억원) - 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 [핵심사업③]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신규}

- 전통문화기업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전문기관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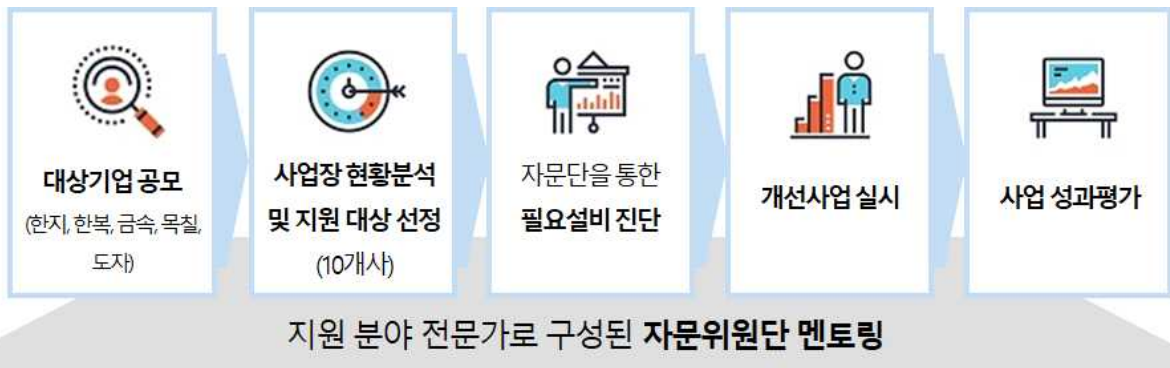


3. 전통문화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토록 돕습니다.

△^{신규}작업환경 개선(1.5억원), △^{신규}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등(30억원)

□ [핵심사업④] 전통문화 작업환경 개선^{신규}

-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있는 영세 전통문화기업 대상 △노후장비 교체, △안전조치 개선, △문화체험·교육·관광시설화 지원



- '22년, 한복·한지·도자·목재·옷칠 등 분야별 1~2개 대표 개선 사례 발굴 → '23년 이후에는 대표 사례를 바탕으로 보급, 확산

□ [핵심사업⑥] 전통문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신규}

- (콘텐츠 제작)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10~20대 대상 전통생활문화 체험 콘텐츠 보급, 미래세대 대상 전통문화 수용도 제고
 - (전통문양 활성화) 기존 전통문양*을 3D화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에 제공, 전통문양 활용 확산 및 신수요 창출
- * 전통문양 DB 구축사업: 문화유산, 전통건축, 전통생활소품, 전통회화 등에서 나타나는 무늬 발굴 및 현대화, 현재 5만여건 DB 보유('08~)

4. 일상 속의 전통문화 확산 노력은 지속하겠습니다.

△^{신규}전통생활문화 교육(5.5억원), △^{신규}전통문화 일상누림 프로젝트(3억원), △해외거점 조성(9.6억원) 등